
언어구분 KOR 논문구분 원저/구연 논문분야 종양

논문제목 유전성 다발성 외골종 환자에서 상지변형의 분석 및 수술적 치료의 유용성

영문제목 **The Classification and Treatment of the Upper Extremity in Multiple Hereditary Exostoses**

발표자 정영우 책임저자 정성택

저자 정성택, 박찬희, 이진호, 정영우

기관명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 유전성 다발성 외골종 환자에서 상지에 발생한 외골종 병변의 분포와 이에 따른 분류 및 수술적 치료 후 결과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 유전성 다발성 외골종 환자에서 상지에 발생한 외골종 병변의 분포와 이에 따른 분류 및 수술적 치료 후 결과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결과 : Masada 분류법에 따라 I, II, III군이 각각 15, 1, 15예였으며, Masada 분류 I과 III이 동시에 존재하는 혼합군(IV)은 19예, 이에도 속하지 않는 다른 형태의 복합군(V)이 7예였다. 비수술군은 요골 관절각, 수근골 전위, 척골 변이가 각각 33.6° , 57%, -3.3mm였으며, 수술군은 술 전 요골 관절각, 수근골 전위, 척골 변이가 27.4° , 38%, -4.8mm에서 술 후 31.2° , 47%, -2.4mm로 호전되었으며 주관절 굴곡 신전 및 전완부의 회내, 회외의 관절운동 범위는 각각 평균 21° - 97° , 67° , 47° 에서 술 후 16° - 106° , 78° , 61° 로 변화되었으며, 수술을 시행한 모든 환자에서 만족 이상의 외관상 만족도를 보였다.

결론 : 유전성 다발성 외골종 환자 중 66%에서 상지 변형이 관찰되었으며, 이들은 기존의 Masada 분류법 이외의 분류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수술적 치료는 변형의 교정 및 더 이상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미용 및 기능적으로 회복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acknowledgment :

유전성 다발성 외골종, 상지 기형, 골유합
